

# 고흥 유자차, 체코 등 유럽시장 수출 확대

###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 현지 마케팅 강화 수출 물량 확보 유럽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작년 11t 이어 올해도 11t 추가

고흥 특산물인 유자가 몽골에 이어 체코 등 유럽시장으로 진출한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유자(Yuza)'라는 현지 브랜드를 달고 두원농협이 생산하는 유자차를 체코를 비롯한 유럽시장에 수출한다.

지난해부터 고흥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유럽 현지 시장에 '고흥유자' 명칭에 대한 현지 브랜드에 집중한 성과라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그동안 고흥 유자차는 1년에 2컨테이너 정도 유럽에 선보였다.

고흥군은 유럽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송귀근 군수를 단장으로 '고흥 농수산물 수출 촉진단'을 발족하고 지난해 8월 7일부터 18일까지 현지 마케팅을 전개했다. 유럽 시장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 2개월에 1컨테이너 수준으로 수출 물량을 확보했

으며, 지난해 12월 11t에 이어 이번에 11t을 수출하게 됐다.

수출 계약을 추진한 원시현 원인터내셔널 대표는 "지난해 송귀근군의 현지 수출 판촉행사와 11월 고흥유자석류축제 때 해외 바이어 초청 행사 등이 유럽 진출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며 "추가 수출에 힘입어 '고흥유자(Yuza)' 브랜드로 유럽 시장의 홍보 마케팅을 강화해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자차 제조사인 두원농협 신선식 조합장은 "고흥군의 마케팅 지원에 힘입어 오는 5월과 7월 1컨테이너씩 수출계약이 완료됐고, 유럽 현지 판매 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자 제품 수출을 통해 고흥유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



고흥 두원농협이 생산하는 '고흥유자(Yuza)'가 몽골에 이어 체코 등 유럽시장으로 수출이 확대된다. <고흥군 제공>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산 유자는 유럽에서 '유주(Yuzu)'라는 이름으로 고흥유자보다 먼저 진출했다.

고흥군은 고흥 유자만의 장점을 살려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유자가 인기를 끌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21일 두원농협의 유자차와 생강차, 고흥군수협 김과 미역 등 고흥특산물 11t이 몽골로 수출됐다. 홍양농협의 고흥쌀도 몽골에서 인기가 높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보성군이 전남도 주관 '제2회 다산안전대상'을 받아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보성군, 2년 연속 전남도 '다산안전대상' 재난 대응능력 최고 인증...사업비 1억원 확보

보성군이 최근 전남도가 주관한 '제2회 다산안전대상'을 받았다.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상사업비로 1억원을 확보했다.

'다산안전대상'은 전남도가 도입한 안전평가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 묵민심사에서 강조한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에 대한 애민사상을 전남지역 각 기관·단체가 적극 실천해 '안전전남'을 실현하고자 만들었다.

이번 평가는 전남지역 22개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지자체 심사는 2019년도 ▲재난관리평가 ▲안전문화운동평가 ▲안전한국훈련평가 ▲재해예방사업평가 등 4개 항목의 성과·실적을 전남도 심사위원회에서 종합 평가했다.

보성군은 실적을 방불케 하는 재난안전 훈련과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

육,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난-안전 제로화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행정을 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코로나19로 군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분야 수상은 더 큰 책임감을 갖게 한다"며 "보성군민, 민간·사회단체, 유관기관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이룬 성과인 만큼 앞으로 군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재난대응 역량과 안전정책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와 전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12개 평가에서 안전문화대상 최우수, 재난관리평가 최우수, 다산안전대상, 안전한국훈련평가 우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평가 우수, 안전문화운동평가 대상, 도로정비평가 최우수상을 받아 총 8억3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곡과농협, 농업용 광역살포기로 코로나 방역 실시

곡성 곡과농협(조합장 구정훈)은 농업용 광역살포기를 활용해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서고 있다.<사진>

곡과농협은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체 예산으로 살포용 소독약을 구입해 유관기관 주자장과 버스정류장, 상가 등의 방역을 3차례 실시했다. 또 곡과농협 본·지점(곡과, 오산, 곁면) 3개면 67개 영농회 회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마을입구에서부터 공공놀이터까지 구석구석 방역을 실시했다.

구정훈 곡과농협 조합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살포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 코로나 극복 의지 동참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고흥소방서

고흥소방서는 최근 혈액 수급난을 해소하고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지기 위해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사진>' 행사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헌혈은 코로나19 사태로 개인 및 단체 헌혈 참여자가 급감함으로써 헌혈 수급에 어려움을 겪자 마련했다.

고흥소방서 직원과 의용소방대원 40여명은 도양119센터에서 헌혈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했다.



남정열 고흥소방서장은 "이번 헌혈로 혈액 수급에 작은 도움이나마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시련이 크지만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곡성 옥과천, 자연·인간 공존 '친수형 생태하천' 변신

### 하도정비사업·전망테크 등 추진...전남 최우수 자연하천 선정도

곡성군이 옥과천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친수형 생태하천으로 가꾼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옥과천은 섬진강의 곡성 제1지류 하천으로, 군과 지역주민의 관심과 노력으로 친수형 생태하천으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다.

곡성군은 지난 2008년 137억원을 투입해 옥과천 하도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자연재해에 대비해 호안정비, 퇴적토 준설,

저류지를 조성해 치수 능력을 높였고, 자연형 여울보 설치, 징검다리, 산책로 등을 조성해 친수기능을 보강했다.

또 단계적으로 옥과천 예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해 기존 산책로들을 연결하고 전망테크 등을 설치했다.

올해는 4억원을 투입해 수변 산책로와 자연형 징검다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기에 수질정화식물과 초화류 단지도 조성한다.

이같은 노력으로 옥과천은 건강한 하천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와 섬진강환경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구성된 전남하천네트워크는 전남 12개 주요하천을 조사했다. 그 결과, 옥과천이 전남 최우수 자연하천으로 선정됐다.

하천의 건강성 평가를 기준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12개 하천 가운데 유일하게 곡성의 옥과천만이 105점 만점에 89점을 획득했다. 자연 건강성에 거의 가깝다는 1등급의 평가를 받은 것이다.

구례수목원, 공립수목원 지정

구례수목원이 전남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공립수목원으로 등록됐다.

10일 구례군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 등록된 수목원은 전국 총 62곳으로 이중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은 30곳이다. 전남에서는 구례수목원이 유일하다. 다만, 전남도가 운영하는 도립 완도수목원이 있어 공립수목원으로는 2호다.

산동면 탐정리에 54ha 규모로 조성된 구례수목원은 남부내륙권역의 식물유전 자원 보전과 국가 식물종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그린궁 GREEN GOONG PRIME EVER 120 프라임에버 120

##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